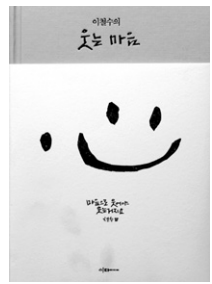


살아 있는 모든 것 온몸으로 말해

판화가 이철수의 귀농 25년 성찰



이철수의 웃는 마음
이철수 펴냄
이다미디어 펴냄
1만4500원

목판화가 이철수가 말을 했다. 판화 활동 외에 좀체 말문을 열지 않던 그가 많은 말을 했다. 책 한 권 분량의 말을 쏟아냈다. 무엇이 그의 말문을 열게 했을까?

이 책은 마음을 말하고, 마음에 대해 얘기한다. 입 무거운 그가 작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 1987년 무렵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간 그는 그림으로, 농사로 불철주야 마음을 갈고 닦았다. 판화를 새기고, 농사를 지으며 애써 일군 마음밭의 울타리를 이제야 거두었다. 그리고 손짓을 한다. 들어와서 한 번 보라고. 딱 25년만이다.

80년대의 이철수는 민중미술 운동사에서 탁월한 판화작가였다. 그가 낱선 칼로 새긴 대형 걸개그림은 운동권의 한 상징이기도 했다. 곧 사회변혁운동을 이끄는 운동권의 깃발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민중운동의 첨병이었고, 그의 판화는 민중운동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귀촌을 감행해 충북 제천 박달재 아래 평동마을에 터를 잡았다. 운동에서 발을 빼고, 자연과 평범한 삶에 몸을 던졌다. 불교와 선불교에 대한 관심과 공부도 깊어졌다. 자연스럽게 판화에도 마음 이야기가 많아졌다. 자연, 생명, 사랑, 환경, 삶 등을 통해 올바른 마음자리를 살폈다.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

는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마음의 주인이 되자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에게 ‘함께’가 없는 삶은 가짜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또 몰살 거친 강 같은 현실을 함께 건너자고 제안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건너자는 말이다.

〈이철수의 웃는 마음〉은 이철수의 판화를 제대로 읽기 위한 책이다. 그가 새긴 판화의 밑자락에는 마음이 깔려 있다. 마음 위에 사람과 자연과 세상 이야기를 새긴다. 그래서 그의 판화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해야 한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당부다.

80년대 민중미술 탁월한 판화작가

87년 서울 떠나 제천 박달재 정착

‘자연, 생명, 환경...’ 등 주제로 판각

자기성찰과 생명 본질에 접근 노력

이 책은 이철수가 제천 평동마을로 거처를 옮긴 이후 25년에 걸친 삶과 사색의 결과물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판화를 새기는 평범한 삶을 통해 자기 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한 구도자의 기록이기도 하다.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함을 감추고 있다고 할까? 인간의 노동, 세상살이의 이치, 자연의 사계와 생명의 순환 등에 대한 통찰은 빼어나다.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온몸으로 함께 살아온 탓일 게다. 나



무, 풀, 바람, 별, 새, 물, 벌레 등 아주 작은 생명조차 놓치지 않는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 온몸으로 말한다.

자연은 이철수에게 삶의 도량이자 경전이다. 농촌에 살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모든 소소한 생명들. 땅, 흙, 공기에 기대어 사는 끈질긴 생명력은 늘 경탄의 대상이다. 그 순간 자신도 각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농사 중에 하늘의 마음을, 하늘 보다 더 큰 힘에 대한 통찰의 언어를 듣는다고나 할까, 그걸 귀나 눈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고 깨닫는 거죠.”

하늘은, 자연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경우가 없다. 자연은 그냥 자연의 일을 할 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다채로

“자연은 그냥 자연의 일을 할 뿐
끈질긴 생명력은 늘 경탄의 대상
인간, 철저히이고 사소한 존재 불과
마음공부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행”

운 변화도 조화도, 그게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공부란 마음의 길 찾기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떠나는 여행처럼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따라 불현듯 나타난 철저히이고 사소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게 이철수의 깨달음이다. 그는 이런 소식조차도 눈이나 귀가 아니라 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게 자신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차茶에 담긴 역사와 문화 이야기

지구상서 매일 38억 잔 차 마셔져
역사적사건 속 차 일화도 함께 수록



차는 중국에서 처음에는 치료제로서 사용됐다. 또한 도교에서는 차가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칭송되었다. 또한 일본의 불교는 차를 정신적인 수양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 그런데 이렇게 세련된 차양의 문화가 서양의 탐욕스런 상인들에 의해 오염되어 무역 전쟁의 빌미가 되었으며, 동인도 회사의 출현으로 여러 나라가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자유무역이란 이름으로 영국은 차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에 아편을 수출했다. 18세기에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차 무역은 홍차에 넣는 설탕 생산을 위해 노예무역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영국에서 차가 대중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국인들의 음료문화를 대표하는 알코올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19세기 동안 영국에서 대중적인 차 소비문화는 인도를 식민지화해서 거대한 차 생산지로 변모시켰다.

베에 달한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매일 38억 잔의 차가 마셔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 세계 음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차는 이미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차의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펼쳐놓는다. 저자는 차에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나 문화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서유럽의 상인들이 동양의 해안에 도착한 이후에 차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차와 관련된 이야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흥터처럼 숨어 있는 동·서양 문화의 충격적인 조우와 충돌의 역사를 들려준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차에 관련된 개별적인 일화, 다양한 이야기와 설화가 만나는 것을 비롯해 차의 유럽으로의 전래, 다른 일용품들과의 뜻밖의 관계 같은 것도 소개한다. 그리고 티 머니, 티 피(티), 티 레이스, 하이 티, 로우 티, 에프티는 티와 같은 차에 관련된 잡다하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 약으로 사용되었던 초기 시대와 현대과학이 고대 중국이 알고 있던 차의 다양한 건강상의 효능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탐색한다.

차의 세계사 | 베아트리스 호베너 저 | 조미라·김리현 옮김 | 열림문 펴냄 | 2만3천원

김주일 기자

주옥같은 108경구 쉽게 해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저 | 휴먼컬처아리랑 펴냄 | 1만5천원



법문과 어록을 공부하며 삶의 수행 지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퍼낸 결과물중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은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경구의 해설과 경현을 담았다.

특히 어느 스님의 열반송이라고 소개한 “이 세상 저 세상에 오고감은 상관치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천세계 만큼인데 은혜 값은 것이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 할 뿐이다.”라는 구절은 우리의 뼈에 사무친다. 누구라도 한 번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맞게 되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경계의 주석도 함께 실려 있다.

또한 이 책은 훌륭한 경구만을 모아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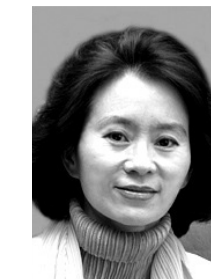
은 것이 아니다. ‘유기있는 지도자와 나약한 지도자’ 편에서는 자비의 화신이라 불리며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달라 이라마 초정을 눈앞의 이익과 외교적 눈치 때문에 허락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경계도 들어 있다.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불교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와 평화, 청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명의 족쇄를 어떻게 하면 풀어 버릴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현대 감수성에 맞는 언어미학 탁월

백여덟 송이 애기메꽃

홍성란 저 | 인북스 펴냄 | 9천원



언어미학적 성취로 한국시조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흥 시인은 이번 시선집에 표제시

인 단시조 ‘애기메꽃’, 종교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실시조 ‘금강화’와 연시조 ‘황진이 별곡’ 등 발표할 때마다 문단의 주목을 끌었던 시조 108편을 4부로 나눠 실었다. 미국 하버드대 데이비드 맥켄 교수가 영역한 시조 4편도 함께 선보여, 화해와 소통의 시양식으로서 현대시조의 위상 확대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변죽을 울리면 당신의 복판에 가 닿아 나와 같이 당신도 흔들리든 좋겠습니다”라는 ‘시인의 말’에서 보듯 절정의 감각을 독자들

미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손꼽는 작품 ‘애기메꽃’에는 ‘시간’의 불가항력적인 힘과 아름다움에 대한 본원적 성찰이 깊이 있게 드러난다. 줄기가 감겨 올라가는 모습의 ‘애기메꽃’에서 시인은 ‘세상’과 ‘나’의 간극 그리고 ‘둘다’와 ‘조그려 앓다’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자아를 바라본다.

이번 시선집에는 〈애기메꽃〉 외에도 〈명자꽃〉(가늘고 긴 기울기) (바람 불어 그리운 날) (따뜻한 슬픔) 등의 명편이 실려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술술 부는 봄 바람 같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위영정 맑은 달과 같은(최동호) 시적 언어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 (055) 58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원목 법상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톨 043-647-2378, 011-467-1472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무료 공개체험
5월 5일 1시~2시
선착순 15명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5월 6일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